

여주시행복교육지원센터 “행복한 여수교육을 만들어갑니다”

학생·부모 양질의 교육정보 제공·여수교육 경쟁력 강화 사람중심 인문인성프로그램 등 3개 분야 29개 프로그램

“여수시는 배움이 즐거움이 되고, 생각과 꿈이 성장하는, 협력과 소통으로 고민하고 탐구하는 열린교육 현장을 학생 스스로 만들어 갑니다”

여주시 행복교육지원센터는 아이들의 행복한 배움 터전을 만들어 가기 위해 ‘행복한 삶을 함께 만들어 가는 여수교육’을 이끌고 있다.

학생과 부모 모두에게 양질의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여수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 3월에 독립동에 문을 열었다.

‘소통하는 교육, 행복한 지역사회, 성장하는 교육공동체’의 비전 아래 △사람중심의 인문인성프로그램, △정보중심 진로진학프로그램, △지역중심 지역자원 프로그램 등 3개 분야 2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마음부터 탄탄하게 인문인성 프로그램

모든 교육의 기본이 되는 인문·인성교육의 기본원칙은 학생들의 마음결을 다듬는 것부터 시작한다. 행복교육지원센터는 △마음결 그래프·글쓰기·독서지도 △여수 역사문화답사 △기후환경에너지체험 △안전한 먹거리 △공유경제교육 △마음성장 전문심리 프로그램 △좋은 인성프로그램 △청소년인성합창 행복무

지컬 △공동체생명유주와캐릭터 등 사고의 힘을 넓히는 다양한 교육과 체험활동을 마련하고 있다.

■ 꿈을 찾아...진로·미래기술체험 프로그램

행복교육지원센터는 다양한 진로미래기술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잘하고 싶은지 학생들과 함께 고민해 왔다. 진로인식 시기인 초·중·고·대학생까지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하며 여주시만의 특별한 꿈터를 만들고 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10만 원의 ‘청소년진로체험행복카드’를 지원해, 자유학기제가 시작되는 기간동안 학생 스스로 자유롭게 주체적으로 진로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응원한다. 또한 전문 직업인과 대학 선배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지난해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산학협력단과 함께 드론과 3D모델링 등을 활용한 미래기술 체험 프로그램인 ‘3D모델링 여수 섬 전경도 프로젝트’를 운영해 여수세계섬박람회를 홍보하고 참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호

응을 받았다.

■ 진학 프로그램 운영...대학입시 설명회, 대입면접 준비

입시를 앞두고 있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학생에게는 내실있는 ‘생활기록부 관리’를 위한 맞춤형 특강과 ‘자기소개서 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입면접 준비지원 프로그램’과 ‘대학입시 설명회’를 마련해 대입제도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입시경쟁력을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함께 성장하다” 지역자원 프로그램... 민관산학 업무협약 체결, 학부모공감토크 등 여수에서 나고 자란 아이라면 누구나 당찬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역과 사회가 손을 맞잡았다.

“한 아이가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지난해 2월, 시와 교육지원청 등 6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부모아카데미’, ‘학부모 감사 양성’ 등 지역의 어른들이 함께 성장하는 여수시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 공감토크’를 마련해 지역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생각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여수시 교육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한 노력도 돋보였다.

■ 온라인 원격수업 플랫폼...‘행복교육E-스튜디오’ 구축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도 안정적인 학습



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해 ‘행복교육 E-스튜디오’를 설치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 송출과 녹화, 블렌디드 교육개발, 디지털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수요자가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접근하기 쉽도록 원클릭시스템을 도입해 진학 및 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 읽 + 삶 융합교육...‘여수형 민주시민교육’, ‘여수 미래학교’ 본격 운영

올해는 여수시 학생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사람됨’, ‘여수시민됨’, ‘세계시민됨’을 기르는 민주시민교육 연구와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민주시민교육 연구 회원을 모집해 감사 양성과 교

육 프로그램개발을 마쳤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학생들이 AI·창의융합 교육, 컴퓨팅 사고력 등 미래 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여수 미래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복교육지원센터 내 상상 교육장을 설치해 체계적인 미래기술 교육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조성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모든 학생이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설계하며, 꿈을 실현해 나가는 기쁨을 함께 느끼고자 올해에도 여수시와 학교, 여수교육지원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소통해 여주시만의 특별한 행복교육을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담양교육청, 학교교육계획 수립 위한 사전협의회 실시

2021학년도 학사일정·자유학년제운영 등 대해 논의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주)은 4일 2021학년도 학교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협의회를 전라남도교육청영상회의시스템(JVO)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관내 중학교 교무부장을 대상으로 2021학년도 학사일정, 자유학년

제운영, 새 학년 집중 준비 운영 기간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학교 간 정보를 공유하고자 마련하였다.

또한 3월 교육과정 정상화와 새 학년 초 학교가 수업과 학생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의견이 반영된 학교교육계획 수립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회의에 참여한 교사는 “2020학년도는 예기치 않은 코로나19로 인해 초기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사들의 공동사고와 협력으로 무사히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 경험과 실재가 축적된 만큼 2021학년도는 안정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것으로 본다. 그러기 위해 교육지원청과 관내 중학교의 협력은 더욱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특별함 더한 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

1월18~22일 청소년 대상 8개 강좌 운영...1월4~13일 수강생 모집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이 겨울방학을 맞아 오는 18~22일 ‘2021년도 특별함을 더한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2021년도 특별함을 더한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실로 엮는 스트링아트 ▲상상력 가득 레진공예 ▲신비한 마술교실 ▲3D의 세계가 궁금해 ▲나도 셰프 등 다양한 체험 중심으로 구성된 8개 강좌로 구성되고, 5회 과정으로 운영된다. 코로나19로 인해 회관 운영 사정에 따라 대면 수업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으로 전환해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 강좌의 접수기간은 4~13일 이고,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모든 강좌의 수강료는 무료이며, 교재 및 재료비만 학생 본인 부담이다. 접수방법은 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학생 본인 이름으로 회원가입 후 강좌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기간 전까지 회원가입을

완료하면 더욱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수강생을 대상으로 회관 방문 시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강좌별 모집인원 감축 조정, 수시 환기 및 소독, 강의실 내 책상간격 조정, 강좌 시작시간 분산을 통한 동시간대 밀집 예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수강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이랑순 관장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며 “아이들이 긴 겨울방학 중 특별한 일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유익하고 흥미로운 강좌들을 개설했으니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